

흡연 규제는 필요하다

흡연은 사람의 신체 조직과 세포에 노화현상을 일으켜 수명이 단축된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약 5분 정도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이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다. 흡연은 기관지염과 폐암, 고혈압은 여러가지 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도 담배연기 속에 노출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금연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흡연자인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비흡연자의 자녀들보다 호흡기 질환에 걸린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처럼 흡연의 단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도 전 국민의 약 40%가 흡연자다. 금연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청소년 흡연자는 늘고 있다. 그런데, 흡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흡연자 대부분은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 행동은 일종의 중독현상이고, 담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성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각성효과일 뿐이다.

이와 같은 피해의 방지를 위해 공공의 장소에서의 흡연과 담배광고는 엄히 규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도 법률에 의해 공공의 장소에서의 금연, 16세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흡연의 규제보다도 금연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금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당장 금연할 수 없는 사람은 흡연량을 줄이고, 연기를 깊이 흡입하지 말고, 필터가 부착된 담배를 피우고, 흡연시기(연령)를 늦춘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흡연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수가 다른 사고로 죽는 사람의 수보다도 많다고 한다.

흡연은 자신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